



산업별 창업 동향

I 법인창업지수 증감률(전년 동월 대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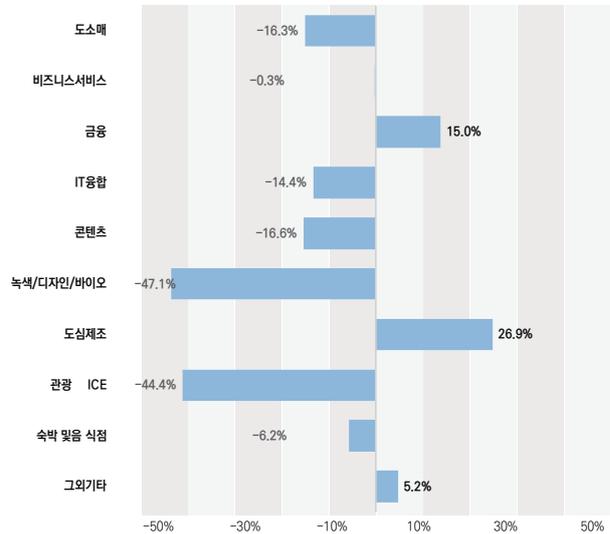
- 서울 법인창업지수는 113.2로 전년 동월 대비 -5.1% 감소
- 지난 4월과 5월 전년 동월 대비 각각 3.8%, 2.8% 증가세를 나타냈으나 6월에는 -5.1%로 감소
- 전년 동월 대비 녹색·디자인 및 패션·바이오메디컬(-47.1%), 관광·MICE(-44.4%), 콘텐츠(-16.6%), 도소매(-16.3), IT 융합(-14.4) 등의 산업 위주로 감소하였으며, 도심제조(26.9%), 금융(15.0%), 그외기타(5.2%) 산업은 증가

I 산업별 창업현황

- 2019년 6월 서울에서 창업한 법인 수는 2,728개로 이중 비영리법인은 100개(3.7%)
- 산업별로는 도소매 565개, 금융 360개, 비즈니스서비스업 354개, IT융합 308개, 콘텐츠 121개, 도심제조 85개, 녹색·디자인 및 패션·바이오메디컬 64개, 숙박 및 음식점 60개, 관광·MICE 45개, 그 외 기타산업 766개가 창업
- 그외기타 산업은 부동산업(31.51%), 제조업(18.9%), 건설업(15.9%) 등으로 구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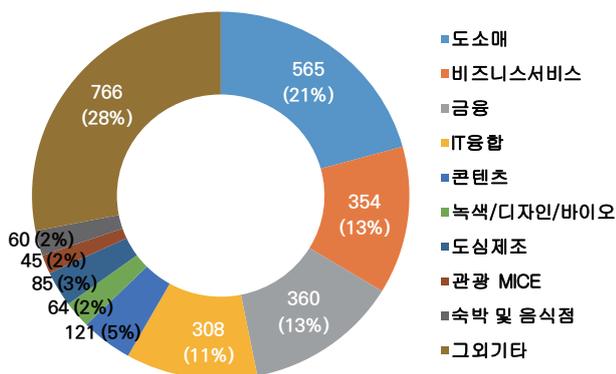
- 반면에 도심제조(26.9%), 금융(15.0%), 그 외기타(5.2%) 산업에서는 창업이 증가

[표 1] 2019년 6월 산업별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



[그림 1] 2019년 6월 산업별 창업법인 수(비중)

단위: 창업법인 수(비중 %)



- 산업별로 살펴보면 녹색·디자인 및 패션·바이오메디컬(-47.1%), 관광·MICE(-44.4%), 콘텐츠(-16.6%), 도소매(-16.3), IT융합(-14.4) 등의 산업 등에서 전년 동월과 비교해 크게 줄었고, 숙박 및 음식점(-6.2%), 비즈니스서비스(-0.3%) 산업에서도 창업 감소